

멕시코 정치변동기의 마을정치의 변화와 그 특징*

김세진(강원대 문화인류학과)**

- I. 들어가며
- II. 연구지 개관
- III. '마을': 자치와 종속의 사이에서
- IV. 마을정치의 변화와 특징
- V. 마을과 중앙 정치와의 관계 변화
- VI. 나가며

I. 들어가며

I.1. 희망의 상징, '변화!'

2000년 7월 2일, 멕시코의 정치사에 대변혁이 일어났다.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해왔던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이 대통령 선거에서 만년 야당 국민행동당(PAN, Partido de la Acción Nacional)에게 패배하였다. 승리가 확실해지자 국민행동당의 빈센트 폭스(Vincent Fox Quesada) 지지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들의 승리의 환호성은 밤새 전국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승자이든 패자이든 멕시코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교체에 자신들의 오늘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3-072-AL2001)

** Se-Gun Kim(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amorsg@kangwon.ac.kr), "La estructura y característica de la política del pueblo campesino en la época del cambio político de México".

과 미래를 투영하였다.

1980년대부터 일상화된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 신음해 온 멕시코 국민들이 진정으로 선택한 것은 국민행동당이라기보다는 빈센트 폭스가 소리 높여 외쳤던 ‘변화’(Cambio)였는지 모른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변화’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다가올 ‘멕시코의 내일’에 대한 환호성의 이면에는 이제까지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두려움은 한편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70여년 동안 제도혁명당을 중심축으로 형성된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지배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에서 기인하였다. 제도혁명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상하원의 과반수와 32개 주 중 20개의 주지사직을 장악하고 있는 최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국민행동당의 소수 여당의 위치는 암살 등으로 점철된 과거의 불안한 정치투쟁의 예고로 비쳐졌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 정치경제적 위기의 심화 속에서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PRD,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을 비롯한 야당들은 세력 확장을 해왔고, 1994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3당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 이는 제도혁명당의 패권적 헤게모니의 해체를 가속시켜왔고, 이들 정당간의 대립과 갈등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점차 마을 수준에서도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변화의 열망이 커져 가는 만큼 내적으로는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어 가는 ‘멕시코 오늘’이 ‘변화의 내일’에 두려움의 그늘을 드리웠다.

그리고 6여년이 흘렀다. 사실 멕시코 국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멕시코 변화의 현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03년 7월에 치러진 주지사 및 하원 의원 선거에서 국민행동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에 만난 모렐로스(Morelos) 주(州)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테포스틀란(Tepoztlán) 무니시피오((municipio)¹⁾ 산 안드레스 데 라 갈

1) 무니시피오는 한국의 시(市) 또는 군(郡)에 상응하는 행정단위로, 본 논문의 주 연구대상지인 테포스틀란은 한국의 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 문맥에 따

(San Andrés de la Cal, 이하 산 안드레스)의 국민행동당 마을책임자의 “우리들은 아무런 피와 죽음을 대가로 치르지 않고도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말처럼, 멕시코 국민들은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마을 수준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지형을 창출해내고 있다.

1.2.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무니시삐오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는 국가 및 주 중심의 중앙정치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때로는 분절되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층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중층적 구조와 특징은 농촌 마을의 정치구조와 행위에서도 일정정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한편으로 농촌과 농민들은 지난 세월동안 제도혁명당의 일당(一黨) 지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예로 1938년에 결성된 전국농민연맹(CNC: Conferación Nacional Campesina)은 제도혁명당과 밀접한 관계, 즉 코포라티즘(Corporatismo)의 한 축을 이루며 농촌 지배의 대리자 역할을 하였다. 제도혁명당은 토지분배, 보조금, 교육 등 다양한 자원과 사회문화적 자원에 대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농민의 정치 행위는 일정정도 제도혁명당의 내적 논리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포라티즘적 지배를 구조화한 제도혁명당이 마을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드물었고, 농촌 마을들은 상대적으로 자치성을 구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은 식민지 이전부터 지켜 온 독자적인 정치 주체임과 동시에 중앙정치에 대한 저항 주체로 작동하였다. 이는 1910년 멕시코 혁명, 1994년 차아빠스 사빠띠스따 반란, 그리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페뵈스뜰란의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과 자치행정부 구성에서도 잘 보여진다. 이처럼 중앙정치에 편입된 하위 단

라 무니시삐오 또는 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위이면서 독자적인 정치단위였던 농촌의 중층적 위치는 까르고 시스템(cargo system) 등과 같은 독특한 마을 정치구조와 문화로 연결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마을정치에 대한 인류학 연구(Cancian, 1965; Wolf, 1966; Foster, 1979; Friedrich, 1986; Collier, 1990; Fox, 1992)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런데 마을의 중층적 위상은 각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때로는 자치성이 강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종속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멕시코 정치변동의 과정에서 마을은 점차 중앙정치의 하부 단위로 편입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사실 1988년 선거부터 제도혁명당의 헤게모니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 등의 야당이 일부 주(州)정부와 무니시뻬오 정부를 장악하였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선거를 통해 제도혁명당 외의 다른 정당들의 지방조직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면서 중앙정치가 직·간접적으로 무니시뻬오 및 마을정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정치지형은 마을 정치행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마을정치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을정치에 대한 연구는 멕시코 정치의 한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정치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페뵈스틀란 무니시뻬오의 산 안드레스 데 라 깔이라는 한 농촌을 연구 대상으로 멕시코 중앙정치의 변화가 마을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마을정치의 상대적 자치성을 가능케 한 기본 구조와 기능을 살펴본다. 둘째 산 안드레스 마을정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본다. 셋째 마을정치의 현재적 변화양상과 특징을 고찰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박사논문의 연구 대상지였던 산 안드레스에서 2004년 7월 한 달여 동안 현지조사를 하였다. 이 때 주요 정당의 마을과 무니시뻬오 책임자, 역대(歷代) 아유단페, 마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정

당의 마을집회, 마을총회, 각 종 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을 하였다.

II. 연구지 개관²⁾

떼쁘스틀란은 멕시코시티의 남부지역과 접해 있는 모렐로스 북부 군(郡)들 중의 하나로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가량 떨어져 있다. 3천 미터가 넘는 화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떼쁘스틀란은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어 멕시코시티 근교에서 손꼽히는 휴양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토지가 적고 박토로 농업조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농사의 필수요소인 강우는 5월이나 6월 초에 시작하여 10월경에 끝나는 우기에 집중되어 있고, 게다가 이 지역이 화산지대로 침투성이 강하여 관개시설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떼쁘스틀란 등의 북부지역에 비가 내려 곧바로 침투하였다가 다시 복류하는 물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사탕수수, 벼 등의 상업농이 발달한 모렐로스 남부지역과는 달리 북부지역은 옥수수·콩·호박 등의 전통적인 생계농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떼쁘스틀란 사람들은 식민지 시기부터 1910년 멕시코혁명 전까지 야우떼펙(Yautepec)과 같은 인근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탕수수 대농장(hacienda)의 주요 노동력 공급원이었다(Lomnitz 1982, 58). 떼쁘스틀란 무니시삐오를 형성하는 8개 마을 중의 하나인 산 안드레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마을 이름(la cal, 석회)에서 보이듯이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사탕수수 대농장 등지에서 농업노동자(peón)로 일하기보다는 건기(乾期)에 설탕 정제, 또르띠야(tortilla, 옥수수부침)용 옥수수 반죽, 건축 등에 필수적인 석회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산 안드레스 주민들은 농업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일정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

2) 이 절은 김세건(2001, 6-9)을 주로 참조하였다.

안드레스 주민들의 삶도 생계농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산 안드레스 농민들의 토지 소유 양태를 보면, 총 203가구 중 92가구(1997년 기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1헥타르 미만이 31.5%, 1-2헥타르가 28.3%, 2-3헥타르가 18.5%, 3-4헥타르가 10.9%, 4-5헥타르가 4.3% 그리고 5헥타르 이상은 6.6%이다. 구텔만(Gutelman 1975)과 스타벤하겐(Stavenhagen 1982)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멕시코에서 농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농의 토지 소유량은 5-25헥타르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산 안드레스 농민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소토지 소유 농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기의 옥수수 생계농업과 건기의 석회생산을 중심으로 한 생계활동은 1910년 혁명 이후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1940년대부터 대토지 소유자 및 상업농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멕시코 농촌근대화의 과고가 멕시코 정부의 근대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산안드레스의 소토지 영세농민들을 강렬하게 강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산 안드레스 농민들도 근대화의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 오히려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한 근대화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1960-70년대에 토마토(jitomate)의 상업적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산 안드레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를 구가하였으며, 급속히 시장 경제로 편입되었다. 주민들은 토마토 재배 외에도 인근 도시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일자리 걱정이 없었던 70년대를 다시 돌아가고픈 향수를 자아낼 정도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 높은 투자비용, 불안한 시장가격, 토질의 저하에 따른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토마토 재배는 쇠퇴하고, 거기에 국내 경제위기에 따른 인근 공업단지의 일자리마저 감소하였다. 이에 산 안드레스 주민들은 옥수수·콩 등의 기본 생계 작물의 재배 또는 미국·캐나다로의 계절적 농업이민과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을 통하여 그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로의 계절농업노동은 가장 큰 수입원으로, 100여명의 주민이 매년 3월부

터 12월까지 계절농업이민을 한다. 이 시기에 마을의 주요 노동력이 거의 빠져나감으로써 농업노동력 구조뿐만 아니라 마을 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Ⅲ. ‘마을’: 자치와 종속의 사이에서

Ⅲ.1. 마을정치의 기초구조와 기능

멕시코 농촌 마을의 사회문화는 원주민, 16세기부터 시작된 스페인 식민지 그리고 근대화시기를 거쳐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 스페인이 오랜 기간동안 멕시코 원주민 사회를 식민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원주민 사회의 독특한 공동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체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지배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스페인 식민지배자들이 원주민 공동체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이를 해체했다면 원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사회를 식민지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Burkhart and Gasco, 1996)은 멕시코 사회문화에서 농촌공동체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농촌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역할(Warman, 1988, 315)을 하는 것으로 본다. 첫째, 농촌 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의 점유와 이용을 결정하는 주체이다. 둘째, 농촌 공동체는 외부 사회에 대하여 주민들을 통합하는 개인 또는 가족 간의 상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단위이다. 셋째, 농촌 공동체는 일정정도 자치성을 지닌 정치단위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지닌 농촌 공동체의 존재는 300여년에 이르는 스페인 식민지와 근대화시기를 거치면서도 식민지 이전의 원주민 문화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나아가 ‘혼종성’(mestizaje/hibridad)으로 특징 지워지는 독특한 멕시코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멕시코 혁명, 사빠띠스따 봉기 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농촌 마을은 연방-주(州)-무니시피오로 연결되는 3단계 공식적 통치구조의 하위체제인 무니시피오에 소속되어 있다. 1940년대 이후

행정체제가 완비되면서, 주·연방 정부 및 제도혁명당이 떼쁘스틀란 무니시삐오에 점차 지배력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이 무니시삐오의 하위단위인 산 안드레스 등의 마을수준까지 체계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견 마을정치는 중앙 정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 단지 떼쁘스틀란 군 정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산 안드레스의 마을정치는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와 이해에 기반하여 자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멕시코 농촌 정치의 자치구조는 일반적으로 까르고 시스템으로 대표된다. 까르고 시스템은 공식 행정체계인 아유단띠아(ayudantía)와 교회 조직인 마요르도미아(mayordomía) 등이 상호 통합된 체계로, 마을의 정치는 까르고 시스템으로 상응·수렴되면서 이루어진다. 칸시안(Cancian, 1990, 169)은 마야 원주민 공동체 시나칸탄(Zinacantan)이 주변의 라디노 사회와는 구분되고 독특한 원주민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속성의 중심에 까르고 시스템이 있다고 본다. 즉 까르고 시스템은 원주민 공동체 사회구조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이 까르고 시스템이 멕시코 농촌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산 안드레스에서는 시나칸탄 사회와 같은 엄격한 직무체계를 갖춘 까르고 시스템은 보이지 않으며, 행정·종교 체계가 상호 독립적이다. 따라서 산 안드레스의 마을정치는 아유단띠아라는 행정 까르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 아유단띠아(Ayudantía)와 공동토지위원회(Comité de Bienes Comunales)

아유단띠아는 공식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다. 아유단띠아는 아유단떼(ayudante)를 비롯하여 부아유단떼(suplente), 비서/사무총장(secretario general) 재판관(Juez de la paz), 치안관(comandante)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3년마다 마을총회(Asamblea pública)에서 선출된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유단떼 등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군수(郡守, presidente municipal)의 3년 임

기에 맞추어 3년으로 바뀌었다.

아유단테와 부아유단테는 마을총회에서 선거로 직접 선출되며, 재판관과 치안관은 아유단테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유단테는 직명에서 보이듯이 군수의 업무를 보좌하는 임무, 즉 군수를 대신하여 마을을 통치한다. 따라서 아유단테가 군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마을 자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이다. 아유단테는 마을을 대표하는 행정수반으로 재판관, 치안관 등과 더불어 마을 행정을 담당하며, 수도위원회(Comité del Agua Potable) 등과 같은 산하 위원회를 관리·감독하기도 한다. 부아유단테는 보통 아유단테 선거에서 차점자였던 사람이 맡는데, 아유단테의 권위시 아유단테를 대신한다.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부아유단테도 마을 행정을 분담하였다고 한다. 즉 부아유단테가 아유단테의 1년 임기 중 3-6개월간 마을 행정을 책임졌다. 그러나 오늘날 부아유단테는 평상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보통 집행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비서는 마을의 재정을 담당하며 서류 작성 등을 하기 때문에 마을의 지식인들이 주로 이 직무를 맡으며 실제 행정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재판관은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데, 주로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연장자가 이 직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치안관은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치안관은 보통 2명의 부치안관을 임명하며, 순찰대(rondero)를 조직 운영한다. 순찰대는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 연락을 위한 심부름 등을 하며, 때로는 마을의 공동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 순찰대원들은 마을의 성인 남성들로 각 가구별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2-3명이 함께 일을 한다. 아유단테 등은 봉사 직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임금은 없다. 또한 아유단테 등은 하루 내 마을 일을 보지 않으며, 자신들의 일이 끝난 후 오후 6시경에 아유단테아에 나와 업무를 처리한다.

아유단테아와 더불어 마을정치에 중요한 조직이 공동토지위원회(Comité de Bienes Comunales)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 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의 점유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로, 이를 대표하는 조직이 공동토지위원회이다. 이 위원회

의 구성과 역할은 아유단떼를 역임(2001-2004년)했던 엘페고(Elfego Rivera)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공동토지위원회는 아유단떼아와는 독립된 조직이다. 다른 여타의 조직처럼 위원장, 비서, 회계 그리고 3-4명의 대의원(vocales)으로 구성된다. 아유단떼가 마을의 모든 행정, 사회, 법률적 일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평의 땅을 줄 수가 없다. 공동토지위원회만이 마을 토지를 통제할 수 있다. 예로 꾸에르나바까(Cuernavaca)의 아콜라빠(Acolapa)가 (도심지역이 확대되면서) 산 안드레스의 경계를 침범하였는데, 위원회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마을공동토지위원회는 ‘떼쁘스뜰란군공동토지위원회’의 하위기관이다. 따라서 떼쁘스뜰란 군 내의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동토지이고, 토지의 점유와 이용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공식적으로 군공동토지위원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로 경계가 설정되고 점유와 이용이 마을 내에서 결정되는 현실에서 마을공동토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예로 화전농업이 성행하던 1940년대에 산 안드레스 내의 산에서 화전을 하려던 떼쁘스뜰란 읍 주민이 산 안드레스 마을 주민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명목상 산 안드레스에 위치한 산들도 떼쁘스뜰란 군에 속하기 때문에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마을의 산에서 화전 경작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마을 간에 존재하는 잠정적 경계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토지 점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종종 마을 간에 갈등이 있어 왔다. 마을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마을공동토지위원회는 아유단떼, 순찰대 등의 힘을 빌려 이 갈등을 해결해왔다. 이처럼 공동토지위원회는 영토의 잠정적 경계를 현실화하며 마을 자치의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공동토지위원회는 마을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단떼아와 더불어 마을자치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직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마을 간의 토지 분쟁이 적어지고, 명목상 마을 내의 모든 토지는 공동토지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에 의해 오랫동안 점유되면서 점차 사유화되었고, 또한 토지거래도 군공동토

지위위원회를 통해 직접 이루어지면서 마을공동토지위원회의 역할과 힘은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따라서 현재 마을정치는 기본적으로 아유단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마을 성원권과 마을 총회

마을의 일상 행정업무는 아유단띠아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 결정되고 실행되지만, 최고 결정기관은 아유단띠아가 주재하는 마을총회이다. 형식상으로는 18세 이상의 사람들만이 마을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18세 이상인가 아닌가가 마을총회에서의 발언과 투표권을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2001년 아유단띠아의 선거처럼 후보 간에 경쟁이 심화되었을 때는 성인 여부가 성원권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결국 마을 성원권의 기준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오히려 특정의 사안에서 외부인과 내부인이라는 경계짓기와 중첩되기도 한다. 이 점은 엘페고의 언설에서 잘 드러난다.

돈 크루스(Don Cruz)의 경우 그의 아들이 이곳에서 결혼했다라도 그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radical) 않고 있으므로 투표권이 없다. 사람들이 항상 그를 외부인으로 생각한다. 아유단띠아 선거에서도 투표권이 없다. 반면에 돈 살로메(Don Salomé)는 여기에 살고 있으므로 내부인으로 간주하며, 투표권이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돈 크루스는 1990년대 초반에 마을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마을에 머무른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마을주민들의 자녀의 대부모가 되었고, 그의 아들도 마을주민 돈 고요(Don Goyo Flores)의 딸과 결혼하였다. 또한 그는 “당신은 외부인이라 말할 자격이 없어”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지만, 마을 부역뿐만 아니라 수도위원회 등의 총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외부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하여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980년대 말에 뿌

에블라 주(州)에서 이주해 온 돈 살로메는 보통 일일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콜로니아 뽀블라나(Colonia Poblana)³⁾에 살고 있다. 마을 총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부역 등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돈 살로메의 마을 성원권을 의심하는 주민은 없다. 이것은 마르시아노(Marcian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게레타로(Guérétaro) 출신인 마르시아노는 토마토 농장에 일을 하러 왔다가 마을 여성과 결혼하여 이곳에 살고 있다. 성실한 일꾼으로 평평이 나 있는 마르시아노도 살로메처럼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부인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외부인이라는 보이지는 않는 경계가 상존한다. 이 점은 마르시아의 부인이 2005년 7월에 있었던 수도위원회 총회에서 아유단떼에게 털어놓은 불만에서 일정 정도 유추될 수 있다.

이전까지 (남편이) 외부인이라고 해서 계속해 순찰대(ronda) 일을 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순찰대에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다. 마르시아노에게 계속 순찰대 일을 시키니까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점을 분명히 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이 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내부인과 외부인이라는 기준이 종종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볼 때 마을 출신이나 아니냐가 마을 성원권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아님은 틀림없다. 마을성원권을 지닌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에 거주해야 하며, 무엇보다 마을에서 부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성원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아유단떼아와 같은 까르고 조직이 구성되며 마을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3) 마을의 남쪽 호수 주변에 위치한 거주지로, 마을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 생겼다. 주로 돈 살로메와 같은 뽀에블라 주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뽀에블라 사람들의 거주지’라는 의미의 ‘콜로니아 뽀블라나’라고 부른다

IV. 마을정치의 변화와 특징

IV.1. 까시께(cacique)의 지배

멕시코 사회의 가장 큰 전환점인 멕시코 혁명을 거치면서 산 안드레스는 급격한 단절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오늘날 마을정치의 구조와 특징은 대체적으로 멕시코 혁명 이후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 이후 산 안드레스의 마을정치는 소위 까시께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에게 장악되었다. 까시께는 하꼬보(Jacobo Robles), 엔리께(Enrique Oliveros), 아루눌포(Arnulfo Martínez), 토마스(Tomás Flores), 안드레스(Andrés Cortés) 등이었다고 한다. 그 중 하꼬보와 아루눌포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한다. 하꼬보는 여러 번의 아유단떼를 역임하였는데, 보통 공동토지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그가 아유단떼일 때에는 순찰대가 아유단떼아에 자면서 경계를 섰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한다. 그는 1970년대 초반에 50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엔리께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공동토지위원회 위원장과 아유단떼를 역임하였다. 특히 그는 혁명 때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주민들의 땅을 대부분 독점하였다고 한다. 엔리께는 자식이 없었고, 10여년 전에 사망하였다. 까시께 일원 중의 한 명인 안드레스 꼬르페스는 엔리께의 이복동생이다.

까시께 지배 시기의 마을정치의 특징은 “그들만 말하였고, 그들에 의해 마을에 지배되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점은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아유단떼를 역임했던 헤리노(Gerino Amante)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한 때 하꼬보, 시틸로 꼬르페스(Cirilo Cortés) 그리고 시틸로(Cirilo Bermudez)가 서로 아유단떼와 공동토지위원회 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마을을 지배했다. 엔리께, 곤살로(Gonzalo Sánchez) 그리고 앙헬(Angel Martínez)이 그들을 지원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말하였다. 알프레도(Alfredo Provisor)가 나를 후보로 추천해서 아유단떼가 되었다. 내가 아유단떼가 되어서 이들의 모든 간섭을 없

애버렸다. 어느 날 곤살로가 내게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절하였다.

까시계의 지배는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까시계는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 그룹을 이루어 아우단피아와 공동토지위원회를 장악하였다. 특히 공동토지위원회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여 부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편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까시계의 지배력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사라졌는데, 이런 변화는 1988년부터 민주혁명당 활동과 떼뽀스플란 골프장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직 교사 헤수스 아만테(Jesús Amante)의 언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몇 십 년 동안 이루어진 마을의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연구자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첫째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마을에 방송중학교(Telesecundaria, 2003년 개교)도 있다. 둘째 지금은 쟁기보다 트랙터가 많은 것처럼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씨앗도 좋아졌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없어 농산물 가격이 없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거의 모든 길이 포장되었고 각 집마다 수도가 있다. 또 집집마다 전화, 컴퓨터가 있다. 넷째 정치적으로는 까시계가 없다. 1960년대까지 까시계가 있었다. 그들은 대장(jefe)으로 가장 부자였고, 가족(familia)들이었다. 그들은 권력(autoridad)을 좌지우지해서 아우단피에를 세우고 통치했다. 그 때 사람들은 문맹이었고 무지하였다.

위에 사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마을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화들로는 주민들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겠다. 오스카 루이스(1994, 58)는 혁명 후 20년 동안 떼뽀스플란에는 학교 교육의 확대, 스페인어 사용 증가, 직업의 전문화와 다양화, 문자해독 능력의 향상과 정규적인 신문구독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떼뽀스플란에서의 변화가 곧 산 안드레스의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산 안드레스도 변화의 물결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혁명 후 석회를 생산하였던 산 안드레스 주민들은 석회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빈번하게 교류를 하였다. 또한 1960-70

년대에 토마토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뿌에블라주, 게르레로(Guerrero) 주의 사람들이 토마토 농사철에 산 안드레스로 이주해 왔다. 멕시코인의 계절농업이민이 많이 이루어지는 미국에 빗대어 “작은 미국”(El Norte Chico)이라고 칭할만큼 산 안드레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를 구가하였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열이 높아서 1964년 ‘베니또 후아레스 농촌 초등학교’(La Escuela Primaria Rural Federal Benito Juárez)가 산 안드레스에 설립되기 전에도 많은 주민들은 자식들을 꾸에르나바카, 떼뽀스틀란에서 교육을 시켰다. 이 점은 마을 출신으로 ‘베니또 후아레스 농촌 초등학교’의 설립 초기에 교사를 역임했던 에스떼반(Esteban Rivera 1966, 12-13, 김세건 2004 재인용)의 글에서도 잘 보여진다.

주민들의 문맹률에 대한 센서스를 통해 나는 비록 어른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주민들은 단지 2%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산 안드레스의 문화수준은 떼뽀스틀란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높은 상태에 있다. 산 안드레스 인구(총 593명(여자 292명, 남자 301명))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16명, 중학생 30명, 간호사 1명, 비서 2명 그리고 마을 밖의 정부기관 및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루이스(1994, 188-189)에 따르면, “1956년 인구의 60% 이상이 여전히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40%가 문맹이었으며, 전국 아동의 46%가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한다면 에스떼반의 센서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왔고, 이 점이 산 안드레스를 다른 인근 마을과 차별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혁명 후 진행된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마을정치는 까시께가 아닌 일반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정치지형도 1990년대에 들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IV.2. 이민의 증가와 마을정치의 변화

최근 산 안드레스의 마을정치는 마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악화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토마토 재배가 쇠퇴하고 국내 경제위기로 인근 공업단지의 일자리도 감소하면서 미국·캐나다로의 계절적 농업 이민 및 불법이민이 많이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는 산 안드레스 데 라 깔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곳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Santa Ana)에 있는 ‘산 안드레스 데 라 깔리포르니아’(San Andrés de la California)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처럼 이민이 증가하면서 까르고 시스템의 충원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즉 마을 사람들이 계절이민을 이유로 어떤 직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방기하기도 한다. 이 점은 2004년 현재 수도위원회 비서를 맡고 있는 라파엘(Rafael)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수도위원회의 비서로 3년은 너무 길다.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인 알베르토(Alberto Oliveros)는 미국에 가고 없다. 지금 노에미(Noemi, 여성)와 둘이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라파엘은 떼쁘스틀란 읍 출신으로 이 마을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읍내에 살다가 2000년 초반에 부인이 상속 받은 땅에 집을 짓고 마을에 정착하였다. “라파엘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지만, 그러나 권리를 위해서는 외부인”라는 전 아유단떼 엘페고의 말처럼, 라파엘은 내부인과 외부인의 경계선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 등의 영향으로 까르고 충원시스템의 약화는 ‘경계인’ 라파엘이 쉽게 까르고 시스템에 편입되고, 마을의 성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특히 여성들이 마을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마을에 살며 꾸에르나바카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달리아 (Idalia Rivera)의 연설에서 여성의 마을정치 참여정도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저녁 6시(2004년 7월 19일)에 아유단띠아에서 새로운 마을 전입자의 수도 이용 허가 및 이용료를 결정하기 위한 수도위원회 총회가 있었다. 위원장인 알베르토는 미국에 일하러 가서 참석하지 못하였다. 약 30명이 참석하였는데 약 3분의 2가 여성들이었다. 여자로는 도냐 에르네스티나(Doña Ernestina)와 그녀의 며느리, 도냐 펠리스(Doña Feliz), 까를로스(Carlos Oliveros)의 부인, 레이문다(Leymunda), 도냐 칸디단(Doña Candidad), 노에미(수도위원회 회계), 켈리(Chely Rivera), 콘수엘라(Consuela), 세 명의 여성 볼몬교도 등이 참석하였다. 이 날 최근에 마을로 이사 온 꾸에르나바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남편과 같이 총회에 참석해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건축가로 마을에 건물을 지을 때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남자로는 호세피노(Josefino, 현 아유단띠), 오스발도(Osbaldo Amante), 레이날도(Reynaldo Pérez), 아순시온(Asunción Altamirano, 현 마을 보안관), 라파엘(Rafael, 수도위원회 비서), 마리오(Mario Desaida) 등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참석자가 적어서 1주일 후에 총회를 다시 열기로 하였다. 여자들이 아유단띠, 재판관, 치안관을 하지 않는 것은 총돌 등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위원회나 보건위원회에서 회계를 보거나 수금을 하는 것은 커다란 총돌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참여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성들의 (계절)이주로 여성들이 마을총회뿐만 아니라 마을정치의 전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까르고 시스템의 주요 직무인 아유단띠, 재판관, 치안관, 공동토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까르고 시스템의 일부인 수도위원회 등의 직책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점차 마을정치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까르고 총원구조와 까르고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의 약화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의 대표 직책이 아유단띠이다. 이 점은 마을정치에 그리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안또니오(Antonio Sánchez)의 언설에서 잘 보여진다.

(또뇨(안또니오 애칭), 왜 너는 마을 일에 잘 참여하지 않나?) 나도

아유단떼를 하고 싶은데(상당히 장난기가 섞인 표정으로) 사람들이 시켜주지 않는다. (또노, 월급도 없는데 왜 아유단떼를 하려고 하나?), 아유단떼가 얼마가 잘 버는데!

아유단떼는 언젠가는 마을의 성원으로서는 봉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맡아야 할 직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주 정부와 무니시빠오 정부를 통해 마을로 유입되는 외부 정치경제적 자원이 많아지면서 아유단떼는 단순히 마을의 일꾼이 아니라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 정부 및 정당과의 관계에서 자원을 유용·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해졌고, 이 과정에서 아유단떼는 일정부분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기도 하였다. 결국 아유단떼는 카르고 시스템 내의 하나의 직위가 아니라 점차 독립된 정치 영역으로 성격을 확장하고 있었고, 아유단떼가 되기 위한 경쟁도 격화되었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2001년 아유단떼 선거에서 나타났다.

2001년 아유단떼의 후보는 아르투로(Arturo Desaida)와 엘페고(Elfego Rivera)(아르투로와 엘페고는 이종사촌간이다)로 압축되었다. 아르투로는 전임 아유단떼였던 형 오스카르(Oscar Desaida, 1998-2001년)의 비서로 있으면서 실질적인 아유단떼 역할을 하였다. 이 때 아르투로는 정부 지원금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분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르투로는 지원세력을 조직화하였지만, 한편으로 반대세력도 만들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반대세력들은 초등학교 교사인 엘페고에게 후보로 나설 것을 청하였고, 엘페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선거에서 아르투로와 엘페고 외에 디에고(Diego Bermudez), 하신토(Jacinto Gutiérrez, 몰몬교인)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디에고는 자신은 미국에 일하러 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며 엘페고를 지지하며 사퇴하였다. 하신토도 엘페고를 지지하며 사퇴하였다. 결국 후보는 아르투로와 엘페고 두 명으로 압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지후보자별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하였고, 엘페고가 이겼다. 그런데 아르투로는 엘페고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에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도 포함되었다며 재선거를 요구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주민들은 각 후보자별로 다시 줄을 섰다. 이번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아유단떼아의 밖에서 줄을 섰다. 마르띠네스 가족, 산체스 가족, 데사이다 가족, 돈 고요 부인, 여 선생 마리벨 프로레스 등의 아르투로 지지자는 아유단떼아에서 마을 중심지 방향으로, 리베라 가족, 마르띠네스 가족 일부, 플로레스 가족, 돈 셀소 데사이다 가족(아루투

로 작은아버지이지만 이종조카인 엘페고 지지), 돈 고요(부인은 아르투로 지지) 등 엘페고 지지자들은 아유단띠아에서 마을 입구 방향으로 줄을 섰다. 그리고 선거관리인들이 각각 수를 세며 투표권자들을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아유단띠아 안으로 출입을 시켰다. 결국 엘페고가 이겼다. 엘페고 지지자들은 밤늦게까지 엘페고 집에서 승리를 자축하였다. 패배한 아르투로는 다음날 아유단띠아에서 모든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고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다. 엘페고는 한 달 동안 밖에서 일을 보며 아르투로에게 모든 서류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르투로는 거부하였다. 결국 엘페고는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부수고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르투로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자신의 집에서 일을 계속 보고 있다.

마을정치는 단순히 마을 내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니시삐오, 주, 중앙 등 마을외부의 정치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내외적으로 상당부분 중층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원에 대한 독점력이 높은 외적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산 안드레스 마을정치의 자치성과 종속성의 경계를 역동시키는 주요 요소였던 외부 정치 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마을정치체제를 의미 변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V. 마을과 중앙 정치와의 관계 변화

V.1. 마을과 무니시삐오의 관계

산 안드레스의 공식 행정명은 산 안드레스 데 라 칼 아유단띠아 무니시삐알(La Ayudantía municipal de San Andrés de la Cal)이다. 무니시삐오는 스페인 식민지의 지배의 산물(Melgarejo, 1988, 230)로 식민지와 멕시코 독립 초기에는 정치적 자치권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혁명으로 인해 지방 정치체제가 와해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무니시삐오는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즉 혁명초기,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정치는 기본적으로 주 또는 무니시삐오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런 무니시삐오의 자치권은 1917년 헌법에 반영되어 ‘자치 무니시삐오’(municipio libre)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1940년대에 연방주의가 확립되면서 무니시삐오 정부는 형식상 완전한 자치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Mallón, 1995, 14; 주종택, 1998, 42). 그렇지만 무니시삐오 정부의 형식적 자치권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가능하였다. 즉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지방 정치권력의 중심이 공식적으로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이것의 법제적 증거는 멕시코 근대 선거의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1946년 선거법이다. 즉 무니시삐오와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던 선거 관리 등이 연방정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정당등록도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지방에서 소정치 그룹이 정당화 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차단되었다”(Ocampo 2001, 80-81 참조).

1910년 멕시코 혁명의 중심지이었던 페뽀스틀란 무니시삐오도 독자적인 자치권을 행사하였고, 지방정치에 중앙정당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Lewis, 1976, 74-78). 페뽀스틀란에 제도혁명당이 들어온 것은 1940년대 초반이다. 멕시코 혁명의 산물인 제도혁명당은 1930년대에 들어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고 점차 노동자 및 농민들과 협력관계, 즉 코포라티즘의 기초를 구축한다. 1980년대 중후반까지 제도혁명당의 일당 지배가 이어지면서 페뽀스틀란 무니시삐오의 정치도 제도혁명당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혁명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페뽀스틀란 무니시삐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제도혁명당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페뽀스틀란에서 제도혁명당은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들도 정당보다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하였기에 정당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Lewis, 1951, 243). 결국 무니시삐오와 마을 수준의 정치는 상당부분 자치적인 성격이 강했고, “무니시삐오와 마을과의 관계는 더 큰 어떤 단위들과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며 더 인격적이었다” (루이스, 1994, 103 참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방 정

부 또는 주 정부보다는 떼뽀스틀란 무니시뽀오 정부가 산 안드레스 마을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점은 헤리노 아만떼의 언설에서 잘 보여진다.

엔리께, 하꼬보, 토마스, 안드레스 등은 까시께로 마을을 지배(mandar)하고자 했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배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협(asustar, espantar)하기 위해 떼뽀스틀란으로 그 사람을 보냈다.

1970년대까지 아유단떼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의 출생신고까지도 군청에 신고할 정도로 모든 마을 일을 관장하였다. 따라서 아유단떼가 군정부와 유일한 고리를 형성하였고, 아유단떼는 군정부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즉 1960년대까지 마을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던 까시께들의 권력도 상당부분 마을과 무니시뽀오의 관계의 독점에서 비롯되었다. 아유단떼는 마을과 군정부간 관계의 핵심으로 각 마을 아유단떼들은 군수에게 마을의 주요한 일을 보고했고, 마을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군정부는 마을보다는 읍 자체에 대부분의 정치경제적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을은 무니시뽀오 정치에서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1995년에 있었던 골프장건설 반대투쟁은 마을과 무니시뽀오와의 관계에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점은 전 아유단떼 엘페고의 언설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

페르민(Fermin)이 아유단떼(1995-1998년)를 할 때에는 남아돌 정도로 자원이 많았다. 이 때 떼뽀스틀란은 (중앙과 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치 무니시뽀오’였다. 따라서 모든 지원들이 (무니시뽀오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산 안드레스로 들어와서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공사를 감독하지는 않았다.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였던 떼뽀스틀란 군수를 축출하고 주민들에 의해 자치 무니시뽀오 정부가 수립되면서 주정부와 떼뽀스틀란 무니시뽀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모렐로스 주정부는 무니시

빼오를 거치지 않고 마을과 직접 관계를 형성하여 마을들을 떼뽀스뜨란읍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골프장반대투쟁으로부터 분리시켜내고자 하였다. 주정부는 기존에 무니시빼오에 분배되던 국고(國庫) 및 각종 지원금을 각 마을단위로 분배하였다. 마을은 2여년 동안 상상할 수 없던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이 때 마을의 거의 모든 길이 포장되었다. 이런 경험은 근본적으로 무니시빼오와 마을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즉 떼뽀스뜨란 무니시빼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시 들어서면서 모든 지원은 무니시빼오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예전처럼 무니시빼오가 재원을 독점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마을정치가 점차 무니시빼오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이런 경향은 마을정치가 중앙정치와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강화되고 있다.

V.2. 마을정치의 중앙정치화

1980년까지 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 등 전통적인 중앙 정당들이 마을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결코 마을정치가 지배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제도혁명당 공식적인 하부조직이나 그룹이 전혀 없었던 마을은 중앙정치에서 무관심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엘페고 리베라의 다음 언설은 기존 정치에서 마을정치의 위상 및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도혁명당은 마을에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국가차원에 더 큰 조직(gremio), 즉 교직원노동조합(Sindicato de Maestro), 전기노동조합(Electricista), 국가보험공단노동조합(Ilste), 사회보장노동조합(Seguro Social), 전국노동조합연합(CTM) 등과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코 제도혁명당은 마을에 관심이 없었다. 단지 제도혁명당은 오스까르(Oscar Desaida, 아유단떼(1998-2001년)) 때까지 아유단떼를 통해 마을을 지배했다. 지금은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정당들이 온다. 이로 인해 마을이 나뉘었다. 사람들은 정당의 그룹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을에 오기 때문이다. 최저득표율을 넘지 못해 많은 정당들이 사라졌다. 전국의 득표를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마을로 온다.

제도혁명당은 마을 수준에서 부재(不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혁명당의 코포라티즘적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마을 구성원을 통해 마을정치에 참여하며 ‘항존(恒存)하는 부재의 정치’를 실현하였다. 즉 제도혁명당은 중앙에서 마을까지 단일화되고 수직적인 지배라인을 통해 통치한 것이 아니다. 제도혁명당은 노동자, 농민, 공무원 그리고 대중을 각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묶어내고, 각 조직을 통해 멕시코 전역, 즉 마을까지도 통치하였다. 결국 제도혁명당은 코포라티즘을 통해 직접 통치하지 않으면서도 통치하였다. 이렇게 제도혁명당은 시혜적 가부장(施惠的 家父長)으로 자리매김되며, 약 70년 동안 멕시코를 지배할 수 있었다. 산 안드레스는 어떠한 제도혁명당의 하부조직도 없었지만, 교직원노조, 농민조합, 노동조합 등 제도혁명당과 연결된 다양한 하위조직의 구성원을 통해 중앙정치와 관계를 맺었다.

멕시코 중앙정치는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멕시코 중앙정치에서 야당의 성장 및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마련 등의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려 마을의 정치구조는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8년 대선의 과정에서 당시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민주혁명당의 꾸아우떼목 까르테나스(Cuauhtémoc Cárdenas)를 지지하는 마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소수였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떼뽀스틀란 읍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립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이 투쟁에는 민주혁명당 지지자들이 적극 호응하였고, 떼뽀스틀란 무니시뽀오 자치정부는 자연스럽게 민주혁명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골프장 반대투쟁이 주민들의 승리로 귀결되고, 1998년 무니시뽀오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주민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없는 멕시코선거법에 따라 민주혁명당 소속으로 자신들의 후보를 출마시켜 당선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떼뽀스틀란읍에서는 민주혁명당이 지역 여당으로서 점차 조직화되었고, 지역사무실도 읍내 중심가에 개설되었다.

산 안드레스에서는 1988년 대선 당시 민주혁명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립 반대 투쟁에 참여하였다. 골프장 반대투쟁이 주민들의 승리로 끝나고 2000년 떼쁘스틀란 무니시삐오 정부가 구성되면서, 산 안드레스 마을의 대표적인 민주혁명당 지지자인 말라끼아(Malaquia Flores)는 ‘공공사업 레히도르(regidor)’⁴⁾로 군 정부에 참여하였다.

이런 일련의 중앙과 떼쁘스틀란에서의 정치 환경의 변화는 마을 정치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중앙정당들이 마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는데, 이 점은 로헬리오(Rogelio Martínez)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어제(2004. 7. 14) PAN모임이 있었다. 산 안드레스에 정당 모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모두 돈 때문이다. 한 정당이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 (ganarse) 무엇인가를 풀어놓는다. 무엇이든지간에, 지봉용 슬레이트 등. “나와 협약을 하자, 그러면 너에게 수도 저수용통을 반 값에 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지지자로 만들며 다음 선거를 위한 기반(terreno)을 다진다. 정치, 항상 제도혁명당이 이겼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변화가 없다. 지금 여당인 국민행동당도 너에게 뭔가 줄게, 너의 표를 다오라는 제도혁명당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한다”라는 엘페고 리베라의 지적처럼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접근 방식은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 등 제 정당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교적 빨리 마을에 지지자를 확보한 민주혁명당도 초기의 지지자들에게 가계용자 등을 실시하였다. 이렇듯 마을에서의 정당조직의 형성과 확산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의 정치’를 펼쳐 온 제도혁명당과 최근 진출한 제 정당들의 마을 조직의 형성 과정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혁명당은 71년 동안 멕시코를 지배해오

4) 한 무니시삐오에 레히도르(regidor)는 인구수에 따라 3명에서 15명까지 있는데, 이들은 군수와 더불어 집행부 및 입법부(cabildo)를 구성한다.

면서도 마을에 어떤 조직도 구성하지 않았다. 제도혁명당 마을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등의 코포라티즘적 조직을 통해 제도혁명당 관계를 맺어왔다. 상당히 다중적이고 다선적인 제도혁명당의 ‘코포라티즘적 조직유형’은 다른 정당에서 있어서는 ‘단선적이고 단일한 조직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코포라티즘적 조직이 빈약한 국민행동당, 민주혁명당 등은 중앙당에서 무니시빠오 지부로 연결되고 단선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단시일 내에 당원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제도혁명당 일당지배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정당의 마을모임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때때스틀란 읍에 지역사무소를 둔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 등은 종종 마을에 와서 공개적으로 당원모집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멕시코 정치구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꼽혔던 코포라티즘이 마을단위에서부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이념과 차별성 등은 마을에서는 조직 및 확산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되기 마련이다. 주민들은 정당의 이념에 대한 밀착도 또는 지지 정도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 및 관습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당들이 도입되고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족, (의사) 친척관계, 종교 등의 사회관계망이 이용된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언설에서 잘 드러난다.

소또(Soto) 집안은 모두 국민행동당원이다. 그 덕분에 빅토리아(Victoria Soto)는 무니시빠오 정부의 행정관(2003년)이 되었다.

알베르또(Alerto Garza, 교사, 물문교도)가 모렐로스 주의 제도혁명당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근무하는 학교를 (시골에서 꾸에르나바까) 시내로 옮겼다. 알베르또 때문에 물문 교인은 대부분 제도혁명당원이다. 요즘 알베르또는 제도혁명당으로부터 바느질 교육 프로그램을 마을에 가져와서 마을 주부들을 모으고 있다.

마을 수준에서 정당의 조직화는 내재되어 있던 주민들의 사회관계적 특성들이 점차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로 앞에서 언급한

아유단떼 선거를 들 수 있다. 2001년 아유단떼 선거에서 민주혁명당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아르뚜로(2003년 지방선거에서는 ‘가능멕시코당’(Partido de México Posible)의 마을책임자 역임)와 제도혁명당의 지지자인 엘페고 리베라(2003년 지방선거에서는 제도혁명당의 마을책임자 역임)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서로의 부정선거를 내세우며 2차 투표까지 가는 마을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유단떼 선거에는 (의사)친척관계, 종교-산 안드레스에는 물론 교회가 있고, 100여명의 물문교인들이 있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당관계 등이 선택 동원되었다. 이처럼 나아가 정당 조직이 주요 자원을 동원하는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기도 하여 마을내의 정치사회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분화 나아가서는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유단떼 선거에서 패배한 아르뚜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100여명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산 안드레스 테넥스띠틀라’(San Andrés Tenexitla)라는 조직을 형성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농촌지원사업을 수주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만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아르뚜로는 각종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포섭대상이 되었다. 이 점은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2003년 지방선거에서 ‘가능멕시코’당(黨)은 멕시코 전역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최소득표율도 얻지 못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산 안드레스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르뚜로 덕분이라고 한다. 아르뚜로는 아유단떼 선거에서 엘페고에게 패한 이후에도 자신의 지지그룹을 유지해왔고, 이들을 중심으로 ‘산 안드레스 테넥스띠틀라’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아르뚜로는 연방정부의 농업개혁성(Secretaría de Reforma Agraria)의 공무원들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하여 10개의 이상의 프로젝트를 가져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분배하였다.

2003년 6월 7일에 행해진 군수선거에 제도혁명당(PRI),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 콘베르헨시아(el Partido de Convergencia), ‘가능멕시코당’ 등이 후보를 냈다. 제도혁명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민주혁명당이 2위, 국민행동당이 3위 그리고 ‘가능멕시코’는 5위를

하였다. 그런데 엘페고 리베라에 따르면, 산 안드레스에는 '가능멕시코'가 177표, 제도혁명당 147표, 국민행동당 123표, 민주혁명당 47표, 끈베르헨시아 50-60표를 얻어 '가능멕시코'가 1위를 하였는데, 아마 전국에서 가능멕시코가 1위 한 곳은 산 안드레스뿐일 것이라고 하였다. 아르푸로는 중앙 및 주정부로부터 많은 프로젝트들을 가져와 이를 '산 안드레스 페넥스띠뜨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조직을 활성화하였고, 선거에서는 이를 정치자원화하였던 것이다.

중앙정치가 적극적으로 마을로 확산되면서 마을정치는 중앙정치가 충돌하는 현상이 되었다. 마을정치가 중앙정치화되면서 한편으로 마을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주민들의 정치 참여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을이 중앙정치체제에 편입이 되면 될수록 마을정치는 외부 논리에 따라 분화되고 외부의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다.

VI. 나가며

오늘날 멕시코에서 '변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상계가 아니라 현실계이다. 2000년 정권교체는 멕시코 변화의 중심에서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산 안드레스와 같은 마을 수준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지형을 창출해내고 있다. 특히 산 안드레스에서 마을정치 지형은 기존과는 상이한 특이점(特異點)을 형성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여도 산 안드레스는 아유단띠아, 공동토지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정치가 행해졌고,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정치는 페쁘스뜨란 무니시삐오와의 관계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마을 외부 정치와는 크게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혁명 후 마을정치는 까시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유단띠아와 공동토지위원회를 장악하고 마을정치를 좌지우지하였다. 내적으로는 토지 등 경제적 관계 및 사회문화적 관계를 동원하고, 외부적으로는 아유단띠아만이 독점하고 있던 페쁘스뜨란 무니시삐오와

의 관계가 그들 권력의 방어막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정치가 한 차례의 변화를 경험한다. 즉 토마토 재배와 인근 공업단지에서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의 호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마을정치를 독점하던 까시계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산 안드레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남성들의 미국과 캐나다로의 계절이농 및 불법이민이 급증하면서 마을정치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먼저 까르고 시스템의 주민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아가 각 개인의 까르고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기존의 마을정치에서 거의 소외되었던 여성들과 외지인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마을정치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1995년 떼뽀스틀란 읍에서 일어난 골프장건설 반대투쟁이다. 산 안드레스 아유단띠아의 상위체계로 마을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떼뽀스틀란 무니시삐오의 공식 정치체제가 무너지면서 산 안드레스는 주 정부가 지원하던 무니시삐오와 마을 통치 재원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었다.

나아가 마을정치는 점차 중앙정치체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는 2000년 정권교체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을 정치 구조와 특성도 많이 변화하였다. 특히 중앙정당과 같은 외부 정치체제가 직·간접적으로 마을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마을 단위에서 중앙정당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선거철이 되면 멕시코 중앙의 모든 정당들의 마을 하부조직이 형성되고, 정당 소속에 따라 주민들 간에 분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아유단띠 등과 같은 까르고의 역할 등이 바뀌고 있다. 아유단띠는 마을의 대표자로 마을 행정을 총괄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마을 외부 정치 단위와의 관계에서 자원을 유용, 통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마을의 정치는 일정부분 멕시코 중앙정치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외부 의존성이 강화되고, 공동 토지, 마을 구성원간의 사회관계망, 아유단띠아 등의 카르고 시스템 등에 기반한 마을정치의 상대적 자치성과 독자성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구조와 특

성에서 마을과 중앙정치 간에 존재하고 있던 ‘이질적’ 다양성은 점차 중앙정치의 장이 단지 마을 단위로 바뀌는 ‘동질적’ 다양성으로 변환되고 있다.

Abstract

Este artículo investiga cómo el cambio de régimen del año 2000 ha influido en la política del pueblo campesino, San Andrés de la Cal, Morelos, México. Hasta la segunda parte de los años 1980, la política del pueblo que funcionaba por medio de la Ayudantía y del Comité de Bienes Comunales tenía la autonomía relativa. Después de la Revolución mexicana los caciques dominaban la Ayundantía y el Comité de Bienes Comunales y se apoderaban de la política del pueblo. Pero en la década de los 1970 el dominio del cacique llegó al fin con el mejoramiento del nivel socioeconómico y educativo de los habitantes. Sin embargo, después de los años 1980 la economía local se empeoró, la gente emigró a los Estados Unidos y a Canadá y a su vez la política se cambió. Antes que nada, los hombres no quisieron tomar cargos del pueblo, por lo tanto las mujeres y los hombres que habían marginado en la política del pueblo se encargaron de unos trabajos.

Ante todo, lo que ocasionó un cambio importante fue el movimiento contra la construcción del club de golf del año 1995 en el municipio de Tepoztlán. Resultó que se derrumbó el sistema político oficial del municipio que influyó directamente en la política del pueblo. El pueblo San Andrés tuvo relaciones directas con el gobierno estatal de Morelos y fue beneficiado con los fondos del gobierno. Así, la política del pueblo empezó a tener una relación íntima tanto con la política central como con varios partidos parlamentarios. Este proceso se aceleró con el cambio de régimen del 2000. En este proceso la estructura y las

características de la política del pueblo se cambiaron. En el nivel del pueblo los partidos del centro se organizaron y los habitantes se dividieron por sus partidos. Además, el papel de los cargos se cambió, por ejemplo el ayundante quien es el representante no se considera como un servidor sino como un político quien puede controlar recursos entrados de la fuera.

Por fin, la política del pueblo que tuvo una autonomía relativa va dependiendo fuertemente de la política exterior y siendo otra cara de la política central. La diversidad heterogénea entre la política del pueblo y la del centro se convierte en la homogeneidad.

Key Words: política del pueblo campesino, cambio de régimen del año 2000, autonomía, cacique, heterogeneidad, homogeneidad/ 마을정치, 2000년 정권교체, 자치, 까시께, 이질적 다양성, 동질적 다양성.

논문투고일자: 2006. 04. 20

심사완료일자: 2006. 05. 04

게재확정일자: 2006. 05. 16

참고문헌

- 김세건(2001), 「멕시코 농촌에서 콤파드라스고의 구조와 역할」, 비교 문화연구 7집, 2호, pp. 3-35.
- 김세건(2003), 「메소띠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36권, 2호, pp. 3-36.
- 주종택(1998), 「멕시코 농촌지역의 정치적 참여」, 라틴아메리카 연구, 11권, 1호, pp. 39-84.
- 주종택(2000), 「멕시코 경제위기와 농촌지역의 국제노동이주」, 라틴아메리카 연구, 13권, 1호, pp. 165-204.
- Handelman, Howard(1997), *Mex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Change*, New York: St. Martin's Press.
- Bailey, John and Leopoldo Gomez(1990), "The PRI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3.
- Burkhart, Louise and Janine Gasco(1996), "The Colonial Period in Mesoamerica", in Robert Carmack(ed.), *The Legacy of Mesoamerica: History and Culture of a Native American Civiliz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pp. 154-195.
- Campbell, Howard(1993), "Tradition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The Politics of Isthmus Zapotec Cultur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0, No. 3, pp. 83-97.
- Cancian, Frank(1965), *Economía y prestigio en una comunidad maya*, México: INI/CNCA.
- Collier, George(1990), *Planos de interacción del mundo tzotzil*, México: INI.
- Cook, Lorena, Kevin Middlebrook and Juan Horcasitas(eds.)(1994), *The Politics of Economic Restructuring: State Society Relations and Regime Change in Mexico*, San Diego: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 Domínguez, Jorge and Alejandro Poiré(eds.)(1999), *Mexico's Democratization*:

- Parties, Campaigns, Elections and Public Opinion*, New York: Routledge.
- Díaz Montes, Fausto(1992), *Los municipios: la disputa por el poder local en Oaxaca*,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Benito Juárez” de Oaxaca.
- Foster, George(1979), *Tzintzuntzan: Mexican Peasants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Elsevier.
- Friedrich, Paul(1986), *Princes of Naranj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Guillén, Tonatiuh(1996), *Gobiernos municipales en México: entre la modernización y la tradición política*, México: Grupo Editorial.
- Lewis, Oscar(1951), *Life in Mexican Village: Tepoztlán Restudied*,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 Lewis, Oscar(1976), *Tepoztlán: un pueblo de México*, México: Joaquín Mortiz, 이덕성 역(1994), 『테포스틀란 마을-멕시코 농민문화』, 서울: 교문사.
- Lomnitz, Claudio(1982), *Evolución de una sociedad rural*, México: FCE.
- Melgarejo, José(1988), *Raíces del municipio mexicano*, Veracruz: Universidad Veracruzana.
- Ocampo Alcántar Rogoberto(2001), *El Sistema Político Mexicano: el agotamiento de un modelo corporativo*, México D.F.: Universidad Autónoma de Sinaloa/Publicaciones Cruz O.,S.A.
- Redfield, Robert(1930), *Tepoztlán, a mexican villag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Rueda Peiro, Isabel(1998), *México: crisis, reestructuración económica, social y política*, México: Siglo XXI & UNAM.
- Warman, Arturo(1988), *Y venimos a contradecir; los campesinos de Morelos y el Estado nacional*, México: Casa Chata.